



문학과학지성사/A5신/394면 내외/12,000원 내외

문학적 편견 벗어나 명작의 진정한 가치 복원해

〈대산세계문학총서〉 1차분 7권 나와

명작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개 셰익스피어, 괴테, 빅토르 위고 등 유럽 문화권에 집중된 작가들의 고전을 떠올린다.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학적 편견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쉽게 깨닫지 못한다. 작품성 또는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중시한다면 마땅히 명작으로 평가되어야 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문학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과 국가의 우수한 작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데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학과학지성사와 대산문화재단이 함께 기획·출간한 〈대산세계문학총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세계 문학의 균형적 수용과 함께 고전과 현대 작품의 조화를 지향해 그동안의 문학적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의욕적인 시도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먼저 1차분 일곱권을 선보였다.

18세기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로렌스 스톤의 소설 《트리스트럼 샌디(전 2권)》(홍경숙)는 이 시리즈의 첫권을 장식하는 책이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혁신적인 소설기법으로 모더니즘 계열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소설로 국내에선 처음 소개된다. 3권 《노래의 책》(김재혁)은 그동안 일부분

만 발췌·소개됐던 하인리히 하이네의 초기시들을 완역해 묶었다. 세계적으로 사랑시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하이네의 시 속에서 현실적 시각에 기반한 사회 비판적 요소를 엿볼 수 있다. 4권은 중남미에서 중남미 작가에 의해 씌어진 최초의 소설 《페리키요 사르니엔토(전2권)》(김현철)다. 지은이 호세 호아킨 페르난데스 데 리사르디는 이 책에서 비판적 안목과 교정 능력을 갖춘 주인공을 내세워 1800년대 멕시코 사회를 철저하게 해부한다. 6권은 기욤 아폴리네르의 첫 시집이자 그에게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알코올》(이규현)이다. 고전주의적 속박에서 벗어나 유려한 내재율을 구사하는 등 아폴리네르의 파격적인 시풍을 만날 수 있다. 7권은 미국 흑인 여성 문학의 어머니라 불리는 조라 닐 허스턴의 대표작 《그들의 눈을 신을 보고 있었다》(이시영)다. 이 책은 흑인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 다성적이고 역동적인 서술구조와 참신한 문체가 이채롭다.

〈대산세계문학총서〉는 번역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해당 언어 전공자에게 직접 번역을 맡겨 이중번역을 배제했으며, 투박하고 어색한 일본어투, 한자투의 번역에서 벗어나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말을 사용했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이다. - 박옥순 기자

전 세계 '숨어 있는 책방' 답사한 고서점 순례기

《세계의 고서점(전3권)》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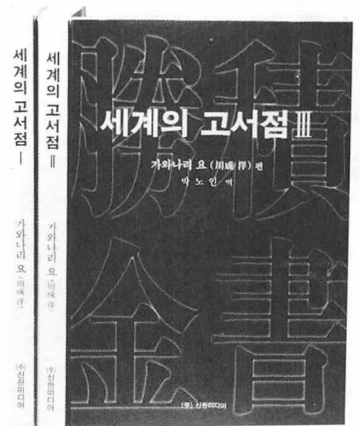
고서점 관련서적을 줄곧 펴내온 신한미디어에서 《세계의 고서점(전3권)》(가와나리 요, 박노인)을 번역·출간했다. 일본의 대학교수, 작가, 화가, 언론인 등 각계인사들이 세계 각국의 고서점을 돌아보고 쓴 답사기를, 호세 이대 교수이자 주간서평지 《도서신문》 편집고문인 가와나리 요가 책임편집했다.

이 책은 단순히 고서점에 대한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 도서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서점의 분위기, 장서종류, 주인의 경영방식 등을 다채롭게 다룬 점에서 특징적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미국, 호주, 인도, 중국, 한국까지 전세계 고서점을 돌아보고 있어, 고서적 보존의 수준과 열의를 비교해가며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영국에서 좋은 천책방을 찾으려면 우선 대성당을 찾은 것이 지름길이다. 대성당은 곧 그 마을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다는 증거기 때문이다. 스페

인 고서점들은 '약방'과 흡사하다. 카운터가 가로놓여 있어 방문객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입구에서 책이름을 말해야 한다.

고서점 주인들의 개성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영국의 페터슨 서점을 경영하는 페터슨 씨는 킹스 칼리지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서점은 주인의 전공과 취향을 반영하는 스페인내전 관련서 등 좌익적 성향의 책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 외 프랑스 어느 서점에서 우연히 말라르메 자필 편지를 발견한 이야기, 이탈리아·밀라노·볼로냐 등지에서 힘겹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음악전문 고서점들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 강성민 기자



신한미디어/A5신/224면 내외/각 8000원